

# 서로에게 소식을 전합시다

## 동정

### ◆ 허남오 회원 (서울지방병무청장)

77년 제21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78년 경찰에 입문한 허회원은 영암, 진주, 서울동부서장과 경찰청 교통안전과장, 정보과장을 거쳐 93년 현직에서 물러나 94년 청와대 민정비서관, 98년부터 충북, 부산 병무청장을 역임하고 2004년 4월부터 서울지방 병무청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지난 95년에 동아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바 있는 허회원은 그동안 “너희가 포도청을 아느냐” 등 7권의 책을 저술한바 있다.

### ◆ 이근표 회원 (前 서울경찰청장)

이 회원은 최근 한국공항공사 주주총회에서 신임 사장으로 선임되었다. 이 회원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경찰 간부후보생 22기로 경찰에 첫발을 내디딘 뒤 인천지방경찰청 차장, 경기지방경찰청 등을 역임했다.

### 『박돈희의 향기나는 글』

## 빙산(冰山)의 일각(一角)

양심(良心)의 바탕에서 나의 잘못 드러내 잘못한 부분 회개(悔改)한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범사에 저지를 잘못 구원 받으려 고해(告解)한 것 빙산의 일각입니다

바다속에 떠있는 빙산수면 위로 보이는 얼음물속 잡긴 얼음 비교하면 너무나 작"은 빙산입니다 그래서"빙산(冰山)의 일각(一角)"

미움, 시기, 질투가 난무하는 가운데 살아가지만 조금의 배려로 인하여 삶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마음을 넓게하여 조건없이 사랑하며 감싸주는 마음이 하루의 삶을 풍성하게 해 줍니다

아픔으로 고통하시는 분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 하시는 분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 되고

규칙 없는 "삶" 일지라도 만남은 소중해야 합니다 인연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인간은 홀로 존재 할 수 없기에 젖은 어깨 털어주고 때문은 마음 헤어 내는 향기나는 사랑방으로 오세요^^

### ◆ 김덕순 회원 (前 경기경찰청장)

김덕순 회원이 최근 경원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지식경영 활동요인이 지식경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자신 근로자들이 지식경영 활동 요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경영성과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이 연구를 실시한 김 회원은 이 논문에서 이론적 배경과 연구의 설계, 실증분석을 마친 후 결론에 도달하는 방법을 구사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57-31, ☎ 02-548-6209)

### ◆ 吳世瓊 회원 (前 청량리경찰서장)

95년 성남남부경찰서장을 끝으로 현직에서 물러난 오 회원은 95년 서울시청 교통방송본부 정보국장, 98년 해병대 전우회 중앙회 부총재를 거쳐 지난 1월 25일 백만 성남시민의 편의시설을 관리하는 경기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연락처 : ☎ (사) 031-725-9425, (자) 031-725-9425, (휴) 011-9036-6173

### ◆ 이상두 회원 (교통정보 연구소장)

이 회원은 최근 경북 영주 동양대학교 자동차 학부 겸임교수로 임명되었다. 이 회원은 현직시절 경찰청 교통안전과 소속으로 교통사고조사를 담당했고, 퇴직해서도 관련분야에서 저술활동과 강의 등으로 교통안전 홍보에 앞장서 왔었다.

### ◆ 이종윤 회원 (대구 경찰회)

이 회원은 최근 「이삭주위 모은 글」이란 책을 펴냈다. 「퇴직이후 갖고 있는 각종 모임들을 재미있게 이끌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이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다」는 이 회원은 「회원들을 즐겁게 하는 것도 봉사라고 생각하고 틈틈이 유익하고 재미있는 글들을 모아 왔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사자성어와 삼식, 시사 건강 및 신용어, 기타 유익한 정보, 노래 신곡 등을 싣고 있는데 지금까지 3년여에 걸쳐 27권의 책자가 나와 회원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다.

### ◆ 김형중 총경 (부산경찰청 정보과장)

김 총경은 오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경찰행정이론을 집대성한 「경찰행정법」을 저술했다. 행정학 박사이자 법학 박사이며

기도한 김 총경은 2006년부터 경찰승진시험에 경찰행정법이 주관식과 객관식 선택과목으로 채택되지만 독자적인 체계를 갖춘 경찰행정법 기본서가 전무한 실정을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자신이 직접 저술에 나서 3년에만에 대작을 만들어 냈다.

이 책은 경찰법 종론을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경찰조직, 작용, 구제 등 각론편의 각 이론에 김 총경의 경찰실무경험에 바탕을 둔 실례를 많이 곁들여 경찰행정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점이 특징이다.

### ◆ 박명렬 총경 (인천경찰청장)

박 총경은 지난 8일 인천경찰청에서 불우 경우 회원의 집을 직접 찾아가 금일봉을 전달하고 선·후배의 정을 나누는 한편, 백광우(79세) 회원이 지병으로 사망하

자 조화를 보내 가족들을 위로하였다. 한편 박 총경의 이같은 선례경우에 대한 배려가 알려지자 당시 빈소를 찾은 경우회장 장도의 등 60여명의 경우회원들은 이같은 소식을 듣고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선·후배의 훈훈한 정을 느끼기에 충분했다며 고마워했다.

### ◆ 성환복 회원 (부산경우회 자문위원)

녹색 시인협회장을 맡고 있는 성 회원은 최근 녹색 시문학이라는 협회 문집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문집에는 시, 수필, 소설 등 회원들의 다양한 작품들이 게재되어 있다.

한편 독도 생태 자연연구회장을 겸하고 있는 성 회원은 성명서를 내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혔다.

### ◆ 전경수 회원 (한국마약범죄학회장)

전 회원은 최근 국내 최초로 마약중독 교정대학원 대학교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 회원은 「마약중독교정 전공, 마약범죄수사전공, 마약중독자 복지전공 등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원에 석사·박사 과정을 설립한다는 방침으로 교육부에 법인 및 인가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면서 「오는 2006년 개교 예정인 이 학교 운영을 위해 교육시설을 서울강남지역에 설치하기로 하고 초대 총장 및 교수원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주소변경

### ◆ 전종선 회원 (중앙회 이사)

서울 서초구 잠원동 67-2번지 브라운스톤 잠원@ 101동 1403호 ☎ 02-591-9525, 011-222-9500

### ◆ 吳世瓊 회원 (경기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7-10 (5층) ☎ (자) 031-715-8119, (휴) 011-9036-6173

### ◆ 문인주 회원 (침전경찰유공자회 회장)

서울 서초구 반포 1동 32-5 서초한양@ 2동 1205호 ☎ 02-595-4863, 011-888-4863

### ◆ 김달환 회원

서울 송파구 잠실 3동 40번지 갤러리아 팰리스 C동 1205호 ☎ 02-2145-4581

◆ 정길영 회원  
인천시 서구 가좌 4동 407번지  
유영@ 102동 503호

◆ 김재곤 회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552번지  
한서타운@ 103동 103호

## 결혼

◆ 김영만 회원 (前 동대문경찰서)의 장녀 경미양이 오는 4월 24일 일요일 오후 1시 서초웨딩홀 1층 수정홀에서 ☎ 011-787-1616

◆ 유병국 회원 (前 치안감)의 둘째딸 재경양이 지난 4월 2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 잠실 향군회관 본관 컨벤션홀에서 (서울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 진주@ 10동 902호 ☎ 02-418-1568)

◆ 박재춘 회원 (前 서울경찰청 감시계장)의 차남 영준군이 지난 3월 26일 토요일 오전 11시 20분 서울 방배 웨딩문화원에서

◆ 박광현 치안감 (인천경찰청장)의 차남 민수군이 지난 3월 26일 토요일 오후 3시 남산자유센터 웨딩홀에서

◆ 강수근씨 (경찰청 총무과)의 장남 근군이 지난 4월 2일 토요일 오후 3시 안양 하나로 뷔페 웨딩홀에서

◆ 정광록 경정 (경찰청 감사관실)의 장남 정일군이 지난 3월 6일 일요일 오후 12시 서울 남산 자유센터 웨딩홀에서

## 부음

◆ 박영근 회원 (침전경찰 유공자회)이 지난 3월 11일 오전 2시 25분 숙환으로 별세.

◆ 박종규 총경 (분당 경찰서장)의 부친이 지난 3월 18일 오후 1시 30분 노환으로 별세. 향년 84세

◆ 김상대 경정 (경찰청 정보통신과)의 부친이 지난 3월 13일 오전 7시경 별세. 향년 70세

◆ 하영수 경정 (광주서부 경찰서)의 모친이 지난 3월 26일 노환으로 별세.

◆ 권오창 경장 (경찰청 항공과)의 조모가 지난 3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경 숙환으로 별세. 향년 91세

## 모임

### ◆ 外友會

오는 4월 11일 월요일 오후 6시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 소재 동원식당(☎ 02-381-7474)에서 정기모임을 갖는다. (연락처 : 회장 정원보, 019-377-1306. 총무 조부호, 011-389-8860)

# 중앙회장, 병석의 老警友 위문

『빨리 쾌유 하시라』고 격려



그리고, 자신이 경우신문 애독자라는 것과 협직시절 기록, 표창장 등을 내어 보이며 『비록 퇴직했지만 마음은 언제나 협직 후배들과 駑友들을 잊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현 회원은 협직에서 퇴직 후 부인과死別했고, 화재로 집까지 불타 버렸는데, 옆침네 덮친격으로 화재 당시 가재 도구를 끌어다가 하리를 심하게 다쳐 불구의 몸이 되었다.

『회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방문해 주시다니 너무나 감격스럽다』며 구 회장의 두 손을 꼭 잡은 이 회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반기운 마음을 금치 못했다.

## 專門醫에 듣는다

# 만성피로 및 春困症에서 탈출하자



윤도경 교수  
<고려대 인산병원  
기정의학과>

봄 별이 따스해 지면서 만성 피로나 춘곤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성 피로는 대부분의 경우 인체의 휴식 요청 신호다. 뇌의 사상하부와 뇌하수체, 뱃속에 있는 부신 등으로 이뤄진 「에너지 자동 감지 시스템」이 인체 내 에너지의 저장량과 소모량을 측정해서 소모량이 많을 때 「이제 쉬어야 한다」고 보내는 신호인 것이다. 이때 몸 곳곳에는 대사물질의 찌꺼기인 초성 포도산 혈당 등이 쌓여 여러 증세가 나타난다.

봄에는 인체의 대사량이 많아지고 취업 입학 등 신상의 변화도 많아서 스트레스 쌓여 피로를 느끼기 쉽다. 그러나 피로가 1개월 이상이면 병적 피로이고 6개월 이상 지속이면 만성 피로이며 병원에서 원인을 찾아 다스려야 한다. 만성피로의 30퍼센트 정도는 결핵, 간염, 당뇨병, 갑상선 질환, 폐질환, 빈혈, 암, 심장병, 류마티스질환 등 각종 질환의 신호다.

또 30~40퍼센트는 스트레스, 불안 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 원인 때문에 생긴다. 신경 안정제, 혈압 조절약, 피임약 등 약 때문에 생기고,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것도 좋은 병법이다.

자신이 자주 피로를 느끼나 실제로 과로가 갖고, 수면이 부족하다면 병적인 피로가 아니고 사회적인 피로이니 여유를 가지고 건강 생활에 힘쓰고, 전에 한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심한 피로가 1달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철률상의 대표적인 춘곤증은 식욕이 떨어지고 온몸이 나른해지며 잠을 자도 피로감이 없어지지 않고 졸음이 계속 쏟아지는 게 특징이다. 낮 시간이 길어지고 일교차가 심해지는 봄으로 바뀐 환경에 몸이 빨리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 즉 외부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인체는 힘들고 그만큼 바빠지는 것이다.

체온 보호를 위해 피부와 근육, 혈관의 수축과 이완이 잦아지며 심장박동의 변화도 많아진다. 각종 호르몬의 분비 역시 많아진다. 결국 힘든 일을 하지 않는데 몸에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많을 수밖에 없다. 춘곤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벼운 운동 ▲식생활 개선 ▲무리하지 않는 생활습관 등이 요구된다.

아침에 일어나 조깅을 하거나 직장 내에서도 2~3시간마다 스트레칭을 하는 등 가벼운 운동으로 긴장된 근육을 풀어준다. 점심식사 후에는 실내에 있지 말고 밖에 나가 산책을 하는 것도 좋은 병법이다.

# 警友들의 休息處 「사랑방」으로 초대합니다

쉽게 찾아와 정답을 나누며 부담없이 휴식과 오락(바둑, 장기, 컴퓨터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소그룹이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용 탁자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원탁



바둑과 장기도 두고, TV를 볼 수 있는